

“열정과 의지는 장애를 이긴다”



취재 | 연슬기 기자 · 취재지원 :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의 병동 복도에는 다양한 그림이 전시돼 방문객들을 반겨준다. 그림 중에는 독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시골집 안마당도 있고, 가을 단풍이 질게 물들은 산길도 있으며, 무궁화로 덮인 우리땅 독도도 있다. 방문객들은 면회를 왔다는 본래의 목적을 잊고 어느새 그림에 빠져든다. 잠시 동안의 관람을 마치고 그들은 어느 저명한 화가가 환자들을 위로 차 몇 점 기증했겠거니 생각한다. 그들에게 이제 진실을 말해주려 한다. 그 그림들은 중증 전신마비의 산재근로자 장재천(56)씨가 손에 붓을 묶어 고정시키고 그려낸 자기극복의 일기라는 것을...

과로로 인해 전신마비 와 ...

장재천(56)씨가 사고를 당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5년이다. 당시 그는 천안에 본사를 둔 모 건설사에 재직 중으로, 업무 차 강원도 홍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파견을 나와 있었다. 총 2년의 공사기간 중 1년이 넘어갈 때쯤이었다. 공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했고, 날마다 야근이 이어졌다.

힘겨운 날들이었지만 성실한 성품의 그는 쏟아지는 일을 묵묵히 감내해냈다. 단지 그가 못 견디게 힘들었던 것은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어 사랑스런 세 아들을 못 본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던 도중 갑작스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계속된 과로가 원인이었다. 급히 병원에 실려 갔지만 이미 팔다리가 굳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중증 전신마비환자가 됐다.

아버지는 존재 그 자체가 힘이다

그의 나이 마흔 둘. 한창 일할 시기였다. 사랑스런 아내에다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 첫째 아들을 포함해 자식 셋이 그의 그림자 뒤에 있었다.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이 이런 현실이 됐다는 사실에 앞이 캄캄했다. 차라리 자신이 없는 게 남은 가족들이 그나마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하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수없이 했다.

하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랑도 채 못다 준 어린 세 아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그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재근로자 장재천(56) 씨

세상의 문은 열려있고 소통의 방법을 찾는것은 자신의 몫

흔히 회화를 말할 때 그림으로 하는 대화라 하여 화담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저와 다른 환자들간에 나아가 세상과의 대화입니다. 그림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세상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당시 저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즉 그림은 세상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신재근로자분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의 원천에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애는 자신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다가가도록 생각을 하게 할 뿐입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 세상과 이야기를 하는 구필화가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스스로에겐 현 상황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세요, 세상의 문은 열려 있고 당신은 단지 소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귀가 있으니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낄 고민을 들어 줄 수 있고, 또 입이 있으니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딪칠 삶의 문제에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병원의 모든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수년의 노력 끝에 팔을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됐다. 그것은 그에게 희망의 시작이었다.

그림을 통해 세상과 대화해

작고 하얀 병실에서 수년을 보내며, 외로움과 답답함에 지쳐갈 무렵이었다. 평소 관심도 없던 회화, 목공예 등의 특수재활치료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그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회화였다. 회화라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상상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불편한 몸이 그의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았다. 간신히 움직이는 정도의 어깨와 손을 가지고는 그림은커녕 붓을 쥘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붓을 손에 묶어 고정시켜버렸다.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불과 손바닥만한 부분을 칠하는 데도 며칠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런 과정 속에 점차 어깨와 허리의 힘이 많이 늘었다. 특히 그림을 그릴 소재를 찾다보니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 병실에서의 생활도 전혀 갑갑하지 않게 됐다.

장재천씨는 대전중앙병원에서 11년이나 입원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환자를 넘어 병동의 매행이자 회화실의 따스한 선생님이로 통한다. 비록 손발이 움직일 수 없어도 영혼과 열정만은 세상 곳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병동의 신재근로자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